

# '꿀벌 보호' 5개 부처 업무협약 본격 시동

### 농진청,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등 공동 연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 업무협약' 현행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상기

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재체결은 기관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담당 기관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

면서 이뤄졌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인벤토리 구축과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꿀벌 건강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과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 특성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 기술 연구로 꿀벌 스트레스 지표를 발

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 밀원을 발굴하고 밀원 단지 조성 및 가치 평가 연구를 수행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꿀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7년 연속 '올해의 연기금상'을 받으며 기금 운용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 7년 연속 '올해의 연기금상' 수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역량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국민연금기금이 7년 연속 '올해의 연기금상'을 받으며 기금 운용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서원주)는 14일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연기금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콩 소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가인 디 에셋은 매년 가장 뛰어난 운용 성과를 거둔 연기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14.14%(시간가중수익률)의 수익률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틈

새 및 비핵심 부동산 섹터에 대한 글로벌 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투자 자변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영국 소재 대체투자 전문잡지 IPE Real Estate Global Awards 2024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시상식에서 국민연금은 '골드' 부문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수 투자자상, '히타지역 우수 투자자상', '히타지역 투자 우수상', '상장 전략 우수 투자자상', '기회주주 우수 투자자상'을 받았다.

서원주 기금이사는 "국민연금의 우수한 기금운용 역량과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위한 제도 홍보... 입법 보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진남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기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기표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기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기표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기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기표 등 에너지비용 포함

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행을 추진 발자취 재배 기계를 증대를 위해 2022년부터 양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양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밭농업 분야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남원농협이 협업하는 사업이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여성화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율이 향상되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협, 양파 재배 기계화 현장 시연회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3일 남원시 산동면 남원농협 관내 양파밭에서 양파 종자 파종부터 수확뿐만 아니라 굴취와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남원농협이 직접 기계화해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남원농협은 박기열 조합장 취임 후 2016년부터 직영 농기계 은행



남원농협은 박기열 조합장 취임 후 2016년부터 직영 농기계 은행 사업을 도입해 수도작 일괄 농작업 대

## 전북은행, 올 여름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여름철 휴식기를 맞아 1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고객 상담실과 객잔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전북은행은 예년보

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 예방을 위해 올해도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무더위 쉼터는 영업점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북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아니

## 건협 전북 회장단, 농어촌공과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17일 지역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개선과 건설공사 발주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건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피해 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소재철 회장은 "지역 건설업체가 물량부족과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 조성 등 공정한 발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히며, 지역 건설업체도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 제고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7일 지역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정문 본부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